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 및 감염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인 에이즈의 국내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궁금했던 것을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글 편집실

변용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첫 소감을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위원회는 보건의료, 복지후생, 아동·청소년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저를 비롯한 위원들 모두가 국민의 보건지킴이, 건강주치의로서 '양태에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 계층의 건강과 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언론인 생활을 접고 정치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점입니까?

30여 년간 방송인으로서 국민께 즐거움과 행복을 전 해드리는데 노력해왔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할 방송인으로서 원칙을 지키며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했

다. 지난 30년간 받은 관심과 사랑을 더 크게 돌려드리고자 정치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각오로 선량(選良)이 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언론인과 정치인 모두 공인으로서 국민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한다. 방송인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만 정치인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이다.

정치 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검은 그림자가 가득했던 곳이 충남 태안이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과 130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검은 기름때를 양손에 묻히며 방제작업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

한 아이들과 아픔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하며, 의정 활동을 위한 체력 유지를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운동은 틈 나는 데로 하고 있는데 특히 쉽게 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주로 걷기운동을 하고 있다. 가장 안전하며, 초보자들도 쉽게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이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그렇게 쉬운 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대로 하는 걷기만큼 전신 운동의 효과가 큰 운동은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1층부터 사무실이 있는 6층까지 늘 걸어서 다니고 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축구팀도 ‘걷기’를 통해 체력을 보충하고 적응 훈련을 한다고 들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지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이루고자 할 것이라는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다. 예산문제는 어느 부처나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에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의 합의 속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은 지속적인 복지프로그램의 확충으로 복지제도의 기본 틀은 구축하였으나,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고 자활을 유도하는 제도가 미흡하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노인·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는 사회, 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비롯한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양질의 서비스 기반의 조성으로 인간개별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2년간 복지 분야에서 위원장님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국민과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에이즈 감염인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편견과 선입견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얼마 전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접한 적이 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아이는 물론 그 가족까지 배척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물론 작가의 펜에서 나온 가상의 스토리이지만 “과연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에이즈는 예방 및 퇴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질병”으로 선입견과 혐오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대한에이즈퇴치연맹의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을 넘어서 국민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국회에서도 예방·관리를 위한 꾸준한 교육정책을 통하여 국민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는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